

# 우리가 서로 보약!

## 한약마을 & 경희대 창업보육센터

2006년 상반기에 이미 매출 50억원을 웃돌며 쾌속질주하고 있는 의약품업체 한약마을. 그들의 성공 뒤에는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바라듯 고향일을 마다지 않은 경희대 창업보육센터가 있었다. 산학연 컨소시엄의 모범적인 표본을 보여주며 성공 보약을 짓는 그들의 열정에서 벤처의 밝은 미래를 엿본다.



월드컵의 붉은 함성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2002년 여름. 실험실에서 제약 연구에 비지땀을 흘리던 김재영 대표가 길을 가다 경희대 창업보육센터의 곽선호 팀장을 만난 것은 어쩌면 성공을 위해 예정된 수순이었다.

“벤처창업대전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는 순간, 이거다 싶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서려니 사업자등록증이며 사업계획서며 준비물이 많았어요. 특히 이과 출신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재영 대표를 도와 두 팔을 걷어붙인 곳이 경희대 창업보육센터. 센터의 엄호로 무사히 창업대전까지 진격한 한약마을은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해 겨울 경희대에서 개최하는 창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센터에

서 안전하게 인큐베이팅된 한약마을은 이듬해 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본격적인 출항의 돛을 올렸다.

### 빠르고, 탄탄하게 승승장구하다

한약마을의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다. 창업대전 전부터 묵혀져 있었던 한의학과 교수들의 100여 개의 특허와 아이템을 사업과 연계해 현실화시킬 단계에 있었고 김재영 대표의 비범한 추진력은 보통 30~40년은 너끈히 소유되는 제약 개발에 초고속 엔진을 달아주었다.

“TT는 창의성이 중요한 데 비해 제약 파트는 공장이나 연구 파트에서 20여 년 정도의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으면 창업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검증된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를 한 자리에 모아

아이템을 선정하고 스크린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리스크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극복했죠.”

비영리 단체인 학교에서 투자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2003년 경희대로부터 2억을 지원받으며 한약마을의 시스템은 풀가동되었다. 경희대의 브랜드네임을 단 한약마을의 제품은 2005년 한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다. 작년 50억의 매출을 올린 한약마을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80억. 홈쇼핑의 초대박 상품으로 등극하며 하루 17억의 매출을 올린 날도 있었다.

### 사업이란 ‘함께하는 것’, 그들만의 윈윈 전략

중기청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경희창업보육센터는 성장가능성이



▲ 만세로 성공을 부르는 한약마을 임직원 일동

큰 기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정부정책자금 수혜·전산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사업화 성공률을 자랑한다.

“한약마을처럼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초창기 투자와 채용,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을 뒷받침하고 착실하게 관리해주는 게 센터의 몫이죠. 적시에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해 유명인사의 강연 자리를 마련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과 경영 노하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희대 창업보육센터를 이끄는 이기석 센터장은 한약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센터의 졸업 업체인 인사이드알에프에게 RFID를 이용한 출·결석시스템 시범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로자이기도 하다.

각종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센터는 입주기업에 창업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적절한 단계에 입각한 사업 활성화 기회를 제공한다. 센터에서 인큐베이팅되었던 엔텔리전트가 넥슨에 흡수·합병되면서 약 3억 5천만원의 현금 수익 창출하는가 하면 한약마을 역시 학교에 2천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고 소외계층 난치질환 환자들을 돕는 데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는 등 사회 환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대기업이 되자

“한약마을이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



◀ (왼쪽부터)장세운 매니저  
김재영 대표  
이기석 센터장

술력도 있었지만 운도 좋았죠. 무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력 사업인 제약에 더 힘을 실어 매년 1000%의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각오로 땀 것입니다.”

10년 안에 1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김재영 대표, 자체 개발한 바이오 천연물로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대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성공하여 졸업한 업체들의 성장모습은 바로 우리 창업보육센터의 현재 모습입니다.”

센터 장세운 매니저의 말대로 한약마을의 성공은 센터의 성과에 다름 아니다. 글로벌 바이오 대기업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한약마을과 이들의 튼튼한 발구름판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경희대 창업보육센터의 우정에서 벤처의 진정한 의리를 느낄 수 있었다.

## 한약마을



대 표 : 김재영

설 립 일 : 2002년 8월 1일

사 원 수 : 17명

주요품목 : 항암제, 생리통치료제, 관절염치료제

매 출 액 : 200억

주 소 : 서울 광진구 군자동 243 태영빌딩 3층

홈페이지 : www.hvpharma.com

전화/팩스 : 02-469-4372 / 02-469-4374

##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센 터 장 : 이기석(경제학과 학과장)

매 니 저 : 곽선희, 장세운, 양영림

개 소 일 : 2000년 12월 15일

주력분야 : 바이오·전자부품등 제조업

입주기업 : 15개(운영률 88%) - 총 17실 운영

홈페이지 : www.kbic.ac.kr

전화/팩스 : 02-961-9330~2 / 02-961-9333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지원 프로그램

투 자 : 산학협력단과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 직접 투자

경영지원 : 센터 자문위원단을 통해 입주부터 경영진단 등을 통한 분기별 맞춤컨설팅 진행

기술지원 : 기술이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경희대 교수와 입주기업의 1:1 보육 닥터제 시행

창업동아리 창업경연대회 : 교내 창업분위기 고취·확산을 위해 사업화가 가능한 예비 청년기업가 발굴 및 양성하여 센터에 1년간 무료입주